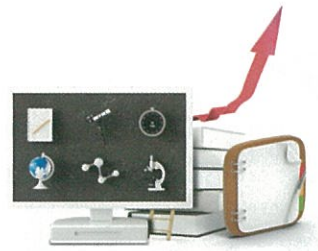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생생한 현장 목소리 듣다!

중기청, 「기술개발(R&D) 애로청취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청은 한국벤처투자(KVIC)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애로사항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기술개발 신청, 평가, 사후관리에서의 개선사항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선정 및 탈락 기업인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술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중기 기술개발 발전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옴니스시스템 이길순 대표는 “기술개발이 기업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도, “사업 신청부터 선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기술변화에 적시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주)틸론 최백준 대표는 “제품화되지 않는 기술개발은 가치가 없다”며, “실질적인 시장 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중기청 기술개발 평가 기준 및 체계 개편”을 건의했다.

노바테크(주) 김기찬 전무이사는 “중기청 기술개발은 평균 2억 원을 1~2년의 단기 소액으로 일괄 지원하나, 과제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을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예비기술창업자 을지대학교 김아름 학생은 “기술개발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특허기술 뿐만

아니라 디자인 개발, 마케팅 등도 필수사항”이라며 사업화를 위한 후속 연계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필수적”이라며, “중소기업 기술개발로 사업화 성공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에 내실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개발 정책을 발굴해 나가고,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지속 개최할 것”이라고 현장 중심 기술개발 지원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미래부 문성유 연구개발조정국장은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 기술개발 사업의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이 선도하는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금년 하반기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혁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문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5)